

2017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6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이 사랑 안에서 씻음

성경: 요 13:1-17

- I.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어 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허리에 동여매셨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동여매신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를 시작하셨다.” — 요 13:1, 3-5.
- A. 여기서 겹옷은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겹옷을 벗어 놓으신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존재의 표현을 벗어 버리신 것을 의미한다.
- B. 허리에 동여매다는 것은 겸손으로 묶이고 제한받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 벧전 5:5.
- C. 여기서 물은 성령(딤후 3:5)과 말씀(엡 5:26, 요 15:3)과 생명(요 19:34, 10:10, 고전 15:45 하, 고후 3:6, 요일 5:16)을 상징한다.
- II. 요한은 표적들의 책이기 때문에, 발 씻는 것에 관해 요한복음 13 장에 기록된 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의 표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 요 13:1-17.
- A. 발 씻는 것을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재적으로, 더 깊고, 더 중요하며 영적인 의미로 받아야 한다.
- B. 요한복음 1 장부터 12 장까지에서는 생명이 옴으로써, 거듭난 이들로 구성된 교회를 산출했다. 거듭난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지만, 그들의 몸 안에서는 여전히 육체 안에 살며 땅 위에서 행하고 있다.
- C. 땅에 속한 것들과 접촉하면서 거듭난 믿는 이들은 자주 더러워진다. 이것은 그들과 주님과 의 교통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사이의 교통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과 말씀과 생명으로 씻을 필요가 있다.
- D. 이것은 그들과 주님과 의 교통, 또 거듭난 이들 사이의 교통이 유지되도록,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 것이지 피로 죄들을 씻어 내는 것(요일 1:9)은 아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 12 장 다음에 이어지는 13 장에서 이러한 표적인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E. 고대에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는데, 길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잔치에 왔을 때, 상에 앉아 발을 뺨으면 먼지와 냄새가 틀림없이 교통을 방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쾌한 잔치가 되도록 하려면 발을 씻어야 했다.
1.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고(요 13:1), 이와 같이 그들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분부하셨다.
 - a. “주이며 선생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 요 13:14.
 - b.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 요 13:34.
 2. 오늘날 세상은 더러워서 우리 성도들은 쉽게 오염된다. 우리가 주님과 의 즐거운 교통과 서로 간의 즐거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들 서로가 사랑 안에서 — 씻는 성령과 씻는 말씀과 씻는 생명으로 — 영적인 발 씻음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3. 이것은 요한복음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 요한일서에 계시된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III. 씻음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과 말씀과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 비교 마 6:6, 고전 16:17-18.

- A.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피가 아니라 그 영과 살아있는 말씀과 내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씻으실 것이다.
1. 우리에게 그러한 씻음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속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릴 수 있다.
 2.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물을 주고 흐르며 우리를 씻을 것이고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은 높여지고 우리의 온존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매우 유쾌하게 될 것이다.
- B.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 요 13:14.
1. 우리의 체험에서 주 예수님 자신과 또한 풍성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를 그렇게 씻어줄 수 있다.
 2. 서로에게 주어진 영적인 발 씻음이 땅에 속한 것을 접촉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준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일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 안으로 공급되는 주님의 발 씻음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들로부터 오는 발 씻음도 필요하다.
 3.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복을 벗어 놓음"으로써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성취와 미덕과 속성들을 벗어 놓는 것이다.
 - a.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 많은 이들이 영성이라는 옷을 입고 다른 이들을 무시한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인 것에 대해 교만하다.
 - b. 우리의 옷을 벗어 놓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폐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4. 수건을 동여매는 것은 우리가 묶이며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런 형제자매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한다.
 5. 우리들 각 사람은 반드시 형제자매들에게 영적으로 발을 씻어 주어 그들의 땅에 속한 접촉에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를 새롭고 신선하며 살아있도록 지켜준다.
 6. 우리는 더러워진 발을 주님과 교통에 있어서 진부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깨끗한 발은 주님과 신선한 교통을 의미한다.
 - a. 5년이나 10년 전처럼 오늘도 주님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이전과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 b. 그들의 발은 더러워졌으며 그들은 피곤하게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피곤함이다. 이것은 영적인 신선함이나 활력을 상실한 것이다.
 7. 우리 속에는 불가사의한 신선함과 능력과 자양분과 공급이 있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의 임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부추기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대화한 결과 그들도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갈망해야 하며 그들의 영적인 힘이 부흥되어야 한다 — 비교 행 20:20, 31.
 8.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신선하고 활기차게 될 수 있다 — 딤후 3:5, 고후 4:16-18.
 9. 첫째가는 사랑, 곧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에 의해 강권되어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며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 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80:17-19.
 10. 발 씻음은 이전의 느낌을 회복하는 것과 우리를 다시 생명의 새로움으로 이끄는 것과, 이전에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신선한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1.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신선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다 — 시 23:2.
 12.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이 없고 그러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 줄 수 없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영은 우리의 보혜사, 곧 우리의 사정과, 소송 사건과 우리의 문제들을 돌보는 분이시다 — 빌 1:19-21 상.

13. 우리는 모두 발이 씻겨질 필요가 있고 우리는 모두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14.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공급하는 모든 봉사 중에서 발 씻음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보배로운 것은 없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 요 13:17.
15. 발 씻음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친밀한 교통을 유지시킨다.
16. 우리가 날마다 신선하고 영적인 체험을 갖기를 바란다. 로마서 15장 32절은 "내가 ...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이것은 발 씻음의 결과이다.
17. "우리는 어떻게 서로 발을 씻겨야 하는가? 예를 들어, 당신이 하루의 세상 일을 다 한 이후에, 피곤하다고 느끼고 입에서 정말로 찬미를 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저녁 집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집회 중에 기도하라고 청한다고 하자. 당신이 기도를 반쯤 했을 때, 당신은 마치 당신의 기도가 문장을 만들고 있는 것같이 부자연스럽고 기도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 어찌면 집회 가운데 영이 아주 신선한 한 형제의 기도가 당신의 영으로 마치 영적인 정신을 회복시켜 주듯 신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는 것이다. 많은 때 우리는 집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영이 약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성경을 읽지만 분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이의 발이 다 더럽고 발을 씻을 물이 한 대야도 없어서, 당신은 영 안에서 통하지 않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만약 발을 씻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 그가 일어나서 혹 얼마의 기도를 하거나 몇 마디 말을 한다든지 하면 즉각 집회가 신선하게 변한다. 그 한 대야의 물이 없고 그 발을 씻음이 없으면 모든 이의 영은 시원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 생활에서도 이와 같다. 어찌면 돌연히 한 형제나 자매가 당신의 집회 와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하나의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리게 된다. 본래는 하나님과 간격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러한 형제나 자매와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모든 간격이 다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기 원하는 웅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반드시 수시로 주님과 교통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신은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성령 안에 살아야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생수를 가질 수 있다. 집회에 올 때마다 당신에게 반드시 생수가 있어야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다." (*워치만 니 전집*, 42 권, 36 장 73-74 쪽).

IV. 영적인 발 씻음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실현될 수 없으며 교회 생활의 실재는 사라질 것이다.

- A. 그러므로 한 면에서는 주님이 직접 해 주시는 매일의 발 씻음이 분명히 필요하며 또 다른 면에서는 모든 성도들에 의한 매일의 발 씻음도 필요하다.
- B. 그럴 때 우리는 탁월한 교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러한 교통으로 우리는 참된 교회 생활을 갖게 될 것이다.